

主催者挨拶



伊藤 勲(いとう いさお)
財団法人ユニバーサル財団理事長

第8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にご参会くださいました皆様に深く感謝申し上げます。

2003年、韓国済州島から出発しました「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は、韓国と日本、会場を交互にもちながら、年々充実して今日を迎えております。ことに、一昨年からは、日韓両国の福祉関係団体の諸先生方にご参画いただき、内容を拡大して、一週間にわたる「日韓こころの交流プログラム」としたことで、現実に即した、より大きな成果を挙げております。このように、拡充してまいりましたのも、関係各位の皆様方のお力添えあつてのことと、心より御礼を申し上げます。

本年は、ここ京都に、日本と韓国の福祉関係者が一堂に集まり、課題を深めつつ、韓国より社会福祉を学ぶ大学院生と若手ソーシャルワーカーを招聘し、学び、交流するプログラムとして進めております。

ユニバーサル財団は、仏教教団宗教法人真如苑の開祖、故伊藤真乗教主の遺志により設立いたしました。仏教では、誰もが持つ清らかな“こころ”、すなわち仏性というものを互いに認め合い、尊重することの大事を解いております。「人類の至福と世界平和」を目標とする当財団では、一人ひとりの“こころ”を大切にすべく、本日の「日韓こころの交流プログラム」のように、多くのプログラムに“こころ”の言葉を入れ、活動に生かしております。

本年のシンポジウムは「ニーズに応える社会起業とソーシャルワーク・アプローチ」をテーマといたしました。

今日、社会や環境、教育、人権、貧困などのグローバル化した課題や、地域社会が抱える様々な問題に対して使命感を持って挑み、積極的に行動する人材の育成が急務となっております。

人を育てていくということは、知識や技術の修得もさることながら、他人を思いやる“こころ”やその行い、また、家族、友人、先輩、恩師など自分の周囲の人からいただく真心、まことを、尊く感謝で受けとめる“こころ”を培っていくことであり、これが社会起業家として非常に大事なことでないかと思えます。

本年のシンポジウムと大学院生および若手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交流の成果、さらに

そのプログラムを東アジア各国との地域の結びつきと協調を目指すべく、まず日本と韓国が連携を深め「アジアモデル」を築いていこうというメッセージをここから発信して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

小さなプログラムですが、開催の営みを重ね、文化、習慣、言語、人種、宗教、国境を越え、あらゆる人と人との関係に友愛の橋を架けて、融和世界を構築して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

このプログラムを通して、世界に羽ばたく優秀な指導者が多く育まれることを心より願いたしまして、ご挨拶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

주최자인사말



이토 이사오(伊藤 勲)
재단법인 유니벨재단 이사장

제 8 회 「일한마음의 교류 심포지움」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한국 제주도로부터 출발한 「일한 마음의 교류 심포지움」은 한국과 일본에서 교대로 개최하면서, 매년 알찬 결실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일한양국의 복지관계단체의 여러 선생님들의 참여 및 기획으로 내용을 심화시키고, 일주일간의 「일한 마음의 교류프로그램」을 통하여, 현실에 입각하여, 보다 큰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실은 관계자여러분의 협력에 의한 것으로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이곳 교토에서 일본과 한국의 복지관계자가 모여, 당면과제를 깊게 토론하며, 한국에서 사회복지를 배우고 있는 대학원생과 젊은 소셜워커를 초빙하여, 배움과 교류의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니벨재단은, 불교교단 종교법인 진노엔(眞如苑)을 창시한 고인 이토우신쥬(伊藤真乘) 교주의 유지를 받들어 설립하였습니다. 불교에서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깨끗한 “마음”, 즉 불성을 서로 인정하여, 존중하는 것을 중요한 대사로 여기고 있습니다. 「인류의 행복과 세계평화」를 목표로하는 본 재단은,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을 소중히하고 오늘의 「일한 마음의 교류프로그램」처럼 많은 프로그램에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활동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심포지움은 「니즈에 따른 사회기업과 소셜워크 어프로치」를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와 환경, 교육, 인권, 빈곤 등의 글로벌화한 과제와,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도전하며, 적극적이고 행동력있는 인재의 육성이 급선무가 되고 있습니다. 인재를 육성한다는 것은 지식, 기술의 습득은 물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그 행동, 또한 가족, 친구, 선배, 은사 등 자신의 주변사람으로부터 받는 참다운 마음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배양시키는 것으로 이것이 사회기업가로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의 심포지움과 대학원생 및 젊은 소셜워커의 교류의 성과, 더욱이 이 프로그램을 동아시아각국과의 지역간의 교류와 협조를 목표로 하여, 먼저

일본과 한국의 연계를 깊게하여 「아시아모델」을 만들어나가자는 메시지를 이곳에서부터 발신하고자 합니다.

작은 프로그램이지만 개최를 거듭함에 따라서 문화, 습관, 언어, 인종, 종교, 국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의 관계속에서 우정의 다리를 놓아 융화세계를 구축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세계에 날개를 펼치는 우수한 지도자가 많이 배출되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기원하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